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pression of the Middle Aged Woman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張 夏 慶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Instructor: Ha Kyung Chang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Kyung Sook Seo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고찰

1. 중년기여성의 정의 및 특성
2. 중년기여성의 우울증

III. 연구문제와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설정
2. 용어의 정의

IV.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표집
2. 측정도구

3. 자료의 분석방법

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
2. 신체적 특성과의 관계
3. 성별지향가치특성과의 관계
4. 성별지향가치특성요인과
우울증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

The middle aged woman today have met discord of unbalance in gender role identity due to change in cultural situation and view of value of our country since 1960.

Under the promise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which is 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gender role traits of middle aged woman, and in consideration that the depression of middle-aged woman may be differentiated depend upon the expressive manner of gender role, this reserach was trying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role traits and the depression of middle aged women.

The purpose of this reserach is to provide data to be helpful for mrntal hygirne of middle-aged women by presenting a plan to reduce depression of middle-aged woman by the desirable

*본 논문은 1992학년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gender role. In order for such studying purpose, the gender role, physical symptom and socio-demographic feature were researched using the scale which was by this reseracher.

The questionnaire sheets of 327 use from middle-aged woman of 39 years to 59 years old in full with their last child is 10 years or order.

The summerized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In consolidation of the foregoing it have known that the socioeconomic position and reconition of physical symptom and and the masculinity feature has shown less depression as she feels less physical symptom due to there is relationship between recondition of physical sympton and he masculinity feature. and also, it has known that the depresion of middle-aged wpmen may be reduced when such extroversive and expressional gender role features are developed as 'aggressiveness and' fraternity, and the depression may be prompted due to such introvert and easy to be impacted by grudge as 'impression'

I. 서 론

오늘날 중년기라고 지칭되는 연령층은 해방전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영향력을 받고 있는 윗세대들과 그들이 영향을 주어야 하는 아랫세대 사이에서 그들의 역할과 가치관을 비롯한 생활 스타일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일어나는 불안정감으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년기 여성들의 문제는 아직 활동력이 왕성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활속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만한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년기에 맞이하는 인간발달과정의 퇴행현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신체적,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중년기 여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특징으로 우울증이 지적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및 성별지향가치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중년기에 맞이하는 신체적 증상은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변인으로 보고 연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역할정체감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특성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성별지향가치특성의 어떠한 요인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위생면에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중년기를 지낼 수 있는 바람직한 성역할정체감의 방향을 제시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중년기 주부가 건강한 정신위생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고찰¹⁾

1. 중년기여성의 정의 및 특성

중년기란 용어는 성인의 중간나이(middle-adult age)를 의미하고 있으나, 한 개인의 중년의 의미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변동과 함께 변화되는 인간의 평균수명과 개인차로 나타나는 노화문제,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별의 차이와 같은 문제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에 대한 그 시기 설정에 있어서는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한 Sheehy(1976)와 Gould(1972)는 35세에서 45세를 중년기로 보았으며, Brim(1976)은 40세~64세를, Buhler(1968)은 45세~60세, Hurlock(1974)는 40세~60세, Papalio와 Olds(1978)는 40세~65세, 김남순(1984)은 40세~59세를 중년기 연령으로 간주

1) 이론적 고찰의 자세한 내용은 학위논문에서 참고하기 바람.

하였다.

가족관계의 변화과정과 생활사건을 기준으로 가족생활 주기를 중년기 지표로 삼은 Borland(1978), Harkins(1978), Targ(1979) 등은 막내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한 시기의 부모를 중년기로 규정하였으며, 서봉연과 유안진(1984)은 중년기를 부모역할의 '빈 보금자리의 시기'로 간주하여 막내자녀가 만 10세 이상이 되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한 부모를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김명자(1989)는 생활연령과 가족생활 주기 개념을 고려하여 40세~59세 사이의 연령을 중년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성인기 이후에 재출현하는 성역할특성의 '결정적 전환기'(Jung, 1972)와 자아발전을 위한 역할에서의 전환점의 시기로 규정하여 여성의 중년기 시기를 막내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하여 부모로부터 정신적·신체적 독립이 시작되는 연령인 만 10세이상이고 여성자신은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는 연령인 만39세이상부터 59세까지의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신체적 변화를 중년기의 특성으로 경험하게 된다²⁾. 이러한 변화의 경험은 여러가지 신체적 증세와 심리적 불안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Levson, 1985) 특히 생리적 변화인 폐경에 대한 여성의 심리는 출산능력의 상실과 노년기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도파적이며 거절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Paula Weidge(1979)은 우리들의 문화에서 여성은 생식할 수 있는 한에서만 평가받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난소기능의 감퇴로 인한 호르몬 부족, 사회문화적인 요인, 심리적 요인(Pearson, 1982)으로 더욱 가속화되기도 한다.

2.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

중년기 여성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부적응 현상은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분이 일반적인 범위

를 벗어나 지나칠 경우라고 해서 기분장애(mood disorder)라고도 하며,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가치 상실, 자존심 상실, 대상관계 상실에 대한 무력감 또는 고립감, 분노 이로 인한 죄책감, 자신으로 향한 적개심 등을 우울증의 원인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년기의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견해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중년기 여성에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인 폐경은 생리적 기능과 여성다움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등을 일으켜 개인의 인성특성(personality trait)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과 불안 및 신경과민을 정서장애를 유발한다고 (Flint, 1976; Lennon, 1980; 김태주, 1987; 박애심, 1980; 정혜란, 1985)보는 견해이다. 사회학자 Bert(1972)는 여성들은 "비어있는 난소" 즉, 부모됨이 끝나버린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사고와 함께 호르몬의 돌연적인 쇠퇴가 중년의 정체감 문제와 함께 우울증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둘째, '역할상실'이 중년기의 우울증을 증가시킨다는 견해로 자녀의 성장과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자녀와의 유대감의 약화는 여성에게 상실감을 갖게 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 변화로 인해 위기를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우울감에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Norval, 1975; Lennon, 1980; 석재호, 1986). Eisendrath(1984)는 이와같이 여성들이 부모의 의무가 끝난 단계에서 우울증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과보호, 즉 너무 심하게 감정적으로 에워싸여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할상실감을 장기간 부정적인 어머니상(Negative mother image)과 동일화하고 있다면 강한 자기 혐오와 자기소외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세째, 중년기 여성은 지나온 생애를 통찰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허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매일 반복되는 주부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성(Gove & Tudor, 1973)으로 중년기 까지 수행해온 주부역할에서 별다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여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는 견해이다. 홍환호(1978, 411~422)에 의하면 이는 신체적질병보다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

2)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년기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학위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증적 증후로 나타난다.

III. 연구문제와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설정

앞에서 서술한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은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은 성별지향가치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성별지향가치특성의 어떠한 요인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몇가지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

중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정신위생상의 부정적인 감정(예를 들면, 식욕이 없다, 보통때는 괴롭지 않던 일이 괴롭게 느껴진다,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내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우울하다, 잘 운다,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인생을 끝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같이 느껴진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 모든 일에 관심이 적다, 성에 대한 관심이나 쾌락을 상실하였다. 내 인생이 실패라는 생각이 든다등)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는 기분장애(mood disorder)증상을 중년기 주부의 우울증으로 정의 하였다.

2) 신체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자각증상인지와 월경상태를 신체적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1) 신체적 자각증상

손발이 차다. 손발이 무감각하다. 무릎이 아프다. 변비가 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현기증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손발이 저리다.

(2) 월경상태

월경이 불규칙적으로 있거나 중단된지 1년 미만 일 경우를 불규칙상태로 보고 중단된지 12개월 이상을 폐경으로 정의하였다.

3) 성별 지향가치특성

성역할특성의 전환시기에 중년기 여성이 남성지향가치특성 또는 여성지향가치특성중 어떠한 요인을 획득하고 상실하는 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개인차가 정신위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각 성별지향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남성지향가치특성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한 개인의 행위, 태도, 가치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욱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을 말한다. KGRI(Korean Gender Role Identity Inventory)의 '믿음직스럽다' 등이다(장하경, 1991). Jung은 여성이 이러한 특성을 획득할 경우 '아니무스(Animus)'³⁾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여성지향가치특성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으로 한 개인의 행위,태도,가치관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KGRI의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 등이다(장하경, 1991).

Jung은 이러한 특성을 남성이 획득할 경우 '아니마(Anima)'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라틴어의 精神의 뜻. 여성의 갖는 무의식의 정신적 측면. Logos의 여성의 본질을 의인화한 것으로 여성의 ego와 무의식에 있는 여성의 내면의 남성적인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갖는 창조자원과 관계가 있는 특성들이다.

IV.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표집

본 조사의 실시에 앞서 1990년 5월에 서울시의 중년기여성 63명과 광주지역의 중년기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본 조사에서 사용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에 질문문항수를 축소하였으며, 지역간의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증, 신체적 증상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는 1991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의 2개 전문대학과 3개 대학교 및 3개 고등학교와 2개 중학교의 학생의 어머니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모두 800부로 학생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전달되거나 직접 배부되었으며, 이 중 562부가 회수되어 내용기재가 부실하거나 본 연구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총 327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은 만 39세 이상 59세까지의 중년기 여성으로 막내자녀가 10세 이상 유배우자인 주부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대상의 일반적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척도는, 중년기여성의 우울증 척도, 신체적증상인지척도 그리고 성역할정체감척도이며, 각 척도별 내용과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 척도

우울증은 Deragatics, Lipman, Cavi & Rickles(19

71)에 의하여 개발된 "Neurotic Symptom Dimensions Scale"과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등을 모체로 하여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20문항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중년여성의 우울증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중년기 여성 63명에게 2주간격으로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마다 '요즘은 어느정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 '늘 그렇다(3점)'의 4점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결과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문항만을 선정하였던 바, 4개의 특성이 제외되었다⁵⁾. 나머지 16개 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53~.89이었으며, 16문항의 전체총점과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13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⁶⁾(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내용임). 상관계수 범위는 .52~.81 이다. 내적 일치도의 신뢰도 계수는 .85 이다.

2) 신체적증상인지 척도

중년기에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1982), Notman(1979), Galloway(1975)와 김영혜(1979), 김영근(1971), 전영자(1985), 그리고 이시형(1984)이 밝힌 중년기의 신체적 증상 13가지를 선정하여 문항을 구성 하였다. 완성된 13문항으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가에 대해서 중년기 여성 63명에게 1991년 5월중 2주 간격으로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 '늘 그렇다(3점)'의 4점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10개 문항이 상관계수 .51~.83에서 선정되었으며⁷⁾, 이들 10개문항의 전체총점과 각

5) 제외된 문항 : 정신집중이 어려워 하는 일이 잘 안된다. 내 미래에 대해 희망이 없게 느껴진다. 두려운 생각이 든다. 잠을 쉽게 잘 수가 없다.

6) 제외된 문항 :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다. 하는 일에 실증을 느낀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 힘들게 느껴진다.

7) 제외된 문항 : 피부가 거칠어졌음을 느낀다. 설사를 한다. 열이 얼굴로 화끈하게 달아 오른다.

4) 라틴어의 魂의 의미. 남성이 갖는 무의식의 여성적 측면이다. Eros의 근본이고 따라서 남성의 Anima의 발달은 어느정도 내성에 접하는 가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Jung은 Anima를 '생명의 원형'이라고 표현한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327

변 인	분 포	N	%	변 인	분 포	N	%
연 령	39세~44세	156	47.7	월 평 균 수 입	100만원 미만	64	19.3
	45세~54세	152	46.5		100~200 미만	148	45.4
	55세 이상	19	5.8		200~300 미만	86	26.4
			300만원 이상		86	26.4	
아 들 수	0명	56	17.1	종 교	없 다	75	22.9
	1명	191	58.4		기독교	109	33.3
	2명	62	19.0		천주교	52	15.9
	3명 이상	18	5.5		불 교	85	26.0
			기타종교		6	1.8	
딸 수	0명	24	7.3	교육수준	국졸이하	30	9.2
	1명	115	35.2		중졸이하	76	23.2
	2명	105	32.1		고졸이하	141	43.1
	3명	55	16.5		대졸이상	80	24.4
	4명	22	6.7	남 편 의 직 업	은퇴·기타	48	14.6
	5명	4	1.2		노무·비숙련·자영업	35	10.7
	6명	1	0.3		상공업	78	23.9
7명 이상	1	0.3	사무직	60	18.9		
큰 자 녀 연 령	10~16세	29	8.7	전문직·관리직	6	32.4	
	17~20세	135	41.2	본 인 의 직 업	전업주부	199	60.8
	21~26세	112	34.2		노무·자영	84	25.7
	27~36세	28	8.5		상공업	12	3.7
	39세 이상	23	6.7		사무직	32	0.9
막내자녀 연 령	10~13세	74	22.6	가족형태	핵 가족	262	80.1
	14~16세	94	28.7		확대 가족	65	19.9
	17~20세	116	35.4	생리현상	규 칙	184	56.3
	21~25세	37	11.3		불규칙	79	24.2
	26세 이상	6	1.8		폐 경	64	19.5
결 혼 지속년수	14년 이하	7	1.8				
	15~19년	105	32.1				
	20~24년	126	38.5				
	25년 이상	90	27.5				

문항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8개의 문항이 중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증상인지문항으로 선정되었다⁸⁾(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문항임). 상관계수는 .55~.79이었으며 신뢰도 값은 .78 이다.

3) 성역할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하경(1991)의 성역할정체감 척도(Korean Gender Role Inventory : KGRI)를 사용하였다.

8) 제외된 문항 : 배가 아프다. 피로하다.

KGRI는 남성지향가치특성 20문항, 여성지향가치특성 20문항 그리고 남녀공통지향가치특성 10문항의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부터 '항상 그러함(7점)'중 선택한 것을 분석하였다. 이 중 중년기 여성에게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남성지향가치 15문항(cronbach'=.87), 여성지향가치 15문항(cronbach'=.81)을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응답자의 남성지향가치특성의 점수는 15개문항의 평균이고, 여성지향가치특성의 점수는 15개문항의 평균으로 계산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와 SAS package program 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별지향가치특성과 우울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검증과 t-검증을 하여 이들 변인 중 의미있는 수준으로 차이가 검증된 변인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분류분석(MCA)을 실시하였다. 성별지향가치특성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으며

이들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보았다.

성별지향가치특성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요인 분석과 성별지향가치특성과 요인의 우울증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은 교육수준(F=6.92, p<.001), 남편의 직업(F=2.99, p<.05), 막내자녀연령(F=2.14, p<.05), 월평균소득(F=4.42, p<.01), 결혼지속년수(F=4.72, P<.01)에 따라 차이가 검증되었다(표 2). 다중범위검증(Duncan-test)결과 교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

(총평균=0.70)

변인	구분	N	평균	F비	t값	Duncan's
교육수준	국졸이하	30	1.02	6.92**		H
	중졸이하	76	.70			L
	고졸이하	141	.71			M
	전문대이상	80	.57			L
남편직업	은퇴·기타	48	.75	2.99*		L
	노무·비숙련·자영	35	.84			H
	상공업	78	.77			H
	사무직	60	.69			L
막내자녀연령	관리직·전문직	106	.59			L
	10~13세	74	.60			L
	14~16세	94	.69			L
	17~20세	116	.77			H
월평균소득	21세 이상	43	.71			L
	100만원 미만	64	.88			H
	100~200 미만	148	.69			L
	200~300 미만	86	.64			L
결혼지속년수	300만원 이상	29	.56	4.42**		L
	19년 이하	201	.60			L
	20~24년	126	.72			L
	25년 이상	90	.80			H
종교유무	무	75	.71	-	.30	
	유	252	.70			
취업유무	전업주부	199	.71	-	-.58	
	취업주부	128	.68			

H : High L : Low M : Medium *p<.05 **p<.01

육수준에 따라서는 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1.02), 월평균소득이 낮을 수록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남편이 노무자이나 비숙련공이거나, 자영업 상공업에 종사하는 경우 우울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M=.84), 우울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M=.59) 집단은 남편의 직업이 자본가이거나 관리직인 집단이다. 결혼 지속 연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점수도 증가하여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우울증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막내자녀가 고등학교시기에 여성의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다(M=.77).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년기 여성이 처해있는 가족생활주기가 자녀문제를 비롯하여 가정경제를 둘러싼 문제,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들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설명中略).

이상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증에

표 3.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변인 (총평균=0.70)

변 인		N	통계전/Eta 편차	통계전/Beta 편차	F
교육수준	국 졸	30	.28	.17	2.19*
	중 졸	76	.02	-.06	
	고 졸	141	.01	.03	
	대졸이상	80	-.03	-.05	
			.23	.14	
남편직업	은퇴·기타	48	.05	-.02	1.06
	노무·비숙련·자영	35	.14	.08	
	상공업	78	.07	.08	
	사무직	60	-.01	-.02	
	전문직·관리직	106	-.11	-.06	
			.19	.10	
연 령	39~44세	156	-.06	-.04	.68
	45~54세	152	.04	.03	
	55세 이상	19	.22	.11	
			.16	.10	
막내자녀 연령	10~13세	74	-.10	-.05	1.08
	14~16세	94	-.03	.05	
	17~20세	116	.08	.02	
	21세 이상	43	.02	-.08	
			.15	.1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64	.18	.16	2.86*
	100~200만원	148	-.02	-.03	
	200~300만원	86	-.05	-.03	
	300만원 이상	29	-.14	-.11	
			.21	.17	
결혼 지속 연수	19년 이하	201	-.09	-.09	1.60*
	20~24년	126	.01	.00	
	25년 이상	90	.11	.18	
			.17	.18	
R ²			.14		

*P<.05

표 4.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특징 변인의 분석

분석방법	변인	N	통제전/ Eta 편차	통제전/Beta 편차	F
주요인	생리현상	규칙	.03	-.00	
		불규칙	.06	-.01	
		폐경	.00	-.01	
			.08	.02	.07
Covariate	신체적 증상 인지	327		.40	90.24***

@ Covariate 값은 회귀계수임 ***p<.001

표 5. 성별지향가치특성과 우울증과의 상관관계

	남성지향가치특성	여성지향가치특성	우울증
남성지향가치특성		.1378***	-.1445**
여성지향가치특성			-.0929*
우울증			

*p<.05 **p<.01 ***p<.001

차이가 검증된 변인들을 예측변수로 하여 중분류 분석(MCA)한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다.

베타값을 기준으로 타 변인 통제후의 각 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연령, 막내자녀연령, 월평균소득, 결혼지속년수변인들의 설명력은 .14로서,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설명력은 주로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변인에 의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인 중년기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들보다 우울증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신체적 특성과의 관계

중년기 여성의 생리현상에 따라서는 우울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증상들에 대한 인지수준에 따라 우울증은 차이를 보여 신체적 자각 증상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높다(F=90.24, P<.001)(표 4). 따라서 중년기 여성은 객관적인 현상인 생리상태보다는 주관적 인식인 중년기에 오는 신체적 변화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우울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 약 22%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신체적 증상인지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의 분산을 설명해 주고 있다(설명 中略).

3. 성별지향가치특성과의 관계

남성지향가치특성, 여성지향가치특성과 우울증과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성별지향가치 특성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과 관련있는 변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남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은 모두 우울증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남성지향가치특성은 우울증과 r=-.14(p<.01)의 관계로, 여성지향가치특성은 우울증과 r=-.09(p<.05)의 관계로 나타나 남성지향가치특성이 여성지향가치특성보다 우울증과 비교적 높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남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 우울증 점수에 대하여 성별지향가치 특성은 약 12% 정도의 영향력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성지향가치특성으로 남성지향가치특성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감소($\beta = -.13, p < .01$)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설명 中略).

4. 성별지향가치특성요인과 우울증

9) 이들 두 성별지향가치특성이 모두 우울증과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것은 성역할척도의 문항을 구성할 때 사회에서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특성만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 여성지향가치 특성요인과 우울증과의 관계

먼저 KGRI의 여성지향가치특성변인의 문항들이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과 Varimax Rotation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Eigenvalue의 기준치는 1.0임)(설명 中 略).

각 요인들에 대하여 내적신뢰도를 산출하여 본 결과 .51~.86으로 요인들의 하위변인 간의 내적 일치도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검증되

었다. 이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명명을 하였다(표 7).

이와같이 요인분석하여 분류된 여성지향가치특성요인의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이들 네 요인중 「요인2」와 「요인4」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친화성」으로 명명된 「요인2」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2)으로 “부드럽다, 상냥하다, 애교가 있다, 짹짹하다”와 같은 특성이 높

표 6. 우울증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성별 지향가치특성	우울증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B의 표준오차	T
여성지향	가치특성	-.01	-.03	.33	-.41
남성지향	가치특성	-.06	-.13	.27	-2.05**
상 수		1.02			
R ²		.12			
F		3.53*			
R		327			

**p<.01

표 7. 여성지향가치 특성의 요인 행렬

문항 번호	내 용	요인 1 가정성	요인 2 친화성	요인 4 내향성	요인 5 감성성	h ²
12	집안일을 잘한다	0.7554	0.1046	0.0306	0.0206	0.5829
23	깔끔하다	0.7011	0.0972	0.1116	0.2469	0.5743
5	요리를 잘한다	0.6470	0.1833	-0.1921	-0.0173	0.4894
38	알뜰하다	0.5704	0.0270	0.2807	-0.0607	0.4089
43	꼼꼼하다	0.5111	0.0678	0.3799	0.2565	0.4759
2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	0.4340	0.2918	0.1864	0.3393	0.4533
14	부드럽다	0.2517	0.5495	0.3937	0.1288	0.5369
49	썩썩하다	0.1382	0.7058	0.0833	0.2208	0.5730
17	상냥하다	0.0824	0.8228	0.0704	0.1313	0.7061
39	애교가 있다	0.0704	0.7745	0.0265	0.0709	0.6105
46	얌전하다	0.0681	0.0809	0.9004	0.1463	0.8432
47	다소곳하다	0.0829	0.1554	0.8909	0.0841	0.8318
33	피아노를 좋아한다	-0.1444	0.0430	0.0904	0.8111	0.6888
20	감정이 풍부하다	0.1108	0.3714	0.0324	0.6827	0.6173
37	아름다운것을 좋아한다	0.3209	0.1560	0.1677	0.5128	0.4184
Eigen Value		4.4175	1.6475	1.5777	1.0684	9.7187
전체 변량 %		29.45	10.78	10.52	10.45	61.12
공통변량 %		50.78	19.88	19.15	11.21	100.

울수록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요인 4」의 “감정이 풍부하다, 피아노를 좋아한다, 아름다운것을 좋아한다”와 같은 ‘감성성’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증가(=.12)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여성지향가치 특성의 요인은 중년기여성의 우울증의 15%를 설명하고 있다.

2) 남성지향가치 특성 요인과 우울증과의 관계

KGRI의 남성지향가치특성변인의 문항들이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주요소 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과 Varimax Rotation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각각의 남성지향가치문항의 요인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을 하였다. (Eigenvalue의 기준치는 1.0임)(표 9). 각 요인들에 대하여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54에서 .88로 요인들의 하위변인간의 내적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표 8. 여성지향가치특성요인과 우울증의 중다회귀분석

여성 지향가치특성	우울증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B의 표준오차	T
요인 1(가정성)		-.02	-.06	.03	-.91
요인 2(친화성)		-.08	-.22	.02	-3.34*
요인 3(내향성)		.02	.06	.02	1.10
요인 4(감성성)		.05	.12	.02	2.02*
R ²					.15
F					3.82*
N					327

*p<.01 **p<.01

표 9. 남성지향가치 특성의 요인 행렬

문항 번호	내 용	요인 1 적극성	요인 2 주도성	요인 3 책임성	요인 4 활동성	h ²
19	박력이 있다	0.8214	0.0878	-0.0088	0.2806	0.7612
18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0.7818	0.1060	0.0310	0.2508	0.6862
8	용기가 있다	0.7480	0.1903	0.1280	0.1487	0.6339
4	일의 추진력이 좋다	0.6752	0.2695	0.1647	-0.0599	0.5593
48	결단력이 있다	0.5743	0.5198	0.2417	-0.1063	0.6697
27	결심한 것을 쉽게 추진한다	0.5220	0.4002	0.2410	0.0676	0.5853
28	보호심이 있다	0.1871	0.7061	0.1485	0.1281	0.5721
35	집안수리를 잘한다	0.0041	0.6695	-0.2102	0.2459	0.5529
40	의지가 강하다	0.3942	0.5722	0.3016	-0.0488	0.5762
44	큰일을 잘 처리한다	0.3934	0.5006	0.2786	0.0644	0.5757
45	지도력이 강하다	0.3392	0.4993	0.2138	0.2814	0.5670
10	사회면에 관심이 있다	0.0384	-0.0252	0.7760	0.2655	0.6748
1	믿음직스럽다	0.1984	0.2483	0.7044	-0.0296	0.5979
30	운동을 좋아한다	0.0683	0.1545	0.0315	0.7952	0.6619
31	사회성이 좋다	0.3389	0.1200	0.2411	0.6829	0.6538
	Eigen Value	5.9769	1.2123	1.1208	1.0179	9.31
	전체 변량 %	39.846	8.082	7.472	6.781	62.37
	공통변량 %	64.14	13.13	12.120	10.60	100.

남성지향가치특성의 요인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남성지향가치특성의 4요인과 우울증을 중다회귀분석하였다(표 10).

그 결과 남성지향가치특성 중 「요인 1」의 “일의 추진력이 좋다, 용기가 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박력이 있다, 결심한 것을 쉽게 추진한다, 결단력이 있다”와 같은 ‘적극성’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eta = -.19$)으로 나타났으며 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남성지향가치특성의 「적극성」요인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경감시키는 데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여성이 중년기에 이르러 “일의 추진력이 좋다, 용기가 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박력이 있다, 결심한 것을 쉽게 추진한다, 결단력이 있다.”와 같은 적극적이고 추진력있는 남성지향가치특성을 지향시킨다면 중년기에 이르러 여러가지 내적·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다가오는 우울증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성지향가치특성과 남성지향가치특성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며, 특히 각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우울증의 증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특징인 우울증은 개인의 성역할의 표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시도되었다. 중년기 여성의 사회인구학적특성, 신체적 특성 및 성역할특성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역할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역할특성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은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월평균소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록 우울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막내자녀가 고등학생인 어머니와 결혼지속년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 이는 가족주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특징 중 생리현상의 불규칙이나 폐경에 관계없이 얼마만큼 신체적 증상을 느끼고 있는지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3) 성별지향가치특성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각각 다른 수준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이 중 남성지향가치특성은 여성지향가치특성보다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지향가치특성보다는 남성지향가치특성이 높을수록 우울증은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4) 남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의 어떠한 요인들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살펴본 결과, 여성지향가치특성 중 ‘친화성’요인과 남성지향가

표 10. 남성지향가치특성요인과 우울증의 중다회귀분석

남성 지향가치특성	우울증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B의 표준오차	T
요인 1(적극성)		-.06	-.19	.03	-2.43**
요인 2(주도성)		.03	.09	.03	1.13
요인 3(책임성)		-.03	-.09	.02	-1.47
요인 4(활동성)		-.00	-.00	.02	-.06
R ²		.13			
F		2.19*			
N		327			

**p<.01 *p<.01

치특성 중 '적극성' 요인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경감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지향 가치특성 중 '감성성' 요인이 높을수록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수 있다.

첫째,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은 중년기에 증가하는 경제적부담감과 자녀와의 관계의 약화 및 자녀의 진로문제, 그리고 부부의 결혼만족도, 커뮤니케이션의 양적감소등의 중년기 여성이 처해있는 가족주기의 문제점등의 영향력이 크다.

둘째, 오늘날의 여성들은 폐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생리현상의 변화보다는 얼마나 신체적 증상에 대해 변화를 느끼는 가에 따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긴장감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가족계획과 같은 인위적인 자녀출산수의 감소정책과 생활환경의 향상과 건강 및 노화예방에 대한 의학의 발달로 인해 중년기 여성들은 폐경이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리현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 폐경은 곧 여성성의 상실이며 노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성역할특성과 관련하여 여성은 중년기에 '친화성'과 '적극성'과 같은 외향적이고 표현적인 특성이 강할수록 심리적으로 밝고 건강 할 수 있으며 '감성성'과 같은 내향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이 많을수록 환경에 쉽게 영향받고 적응하기 어렵다. 중년기는 성역할특성의 전환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지향하고 부드럽고 친화력있는 태도로 생활하고, 지나치게 감정이 풍부하거나 주위에 영향받기 쉬운 감성적인 면을 지양한다면 중년기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중년기에 이르러 건강한 정신위생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리라 본다. 자녀가 성장하여감에 따라 약화되는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위해 자녀쪽에서의 중년기 어머니가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부부간의 소홀해지기 쉬운 관계를 위해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등의 상호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가족생활에서 가족간의 응집력이 요구되며, 특히 부부간의 공통의 여가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중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공식적, 비공식적후원으로 제기된다. 또한 청년기 이후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두되는 교육비와 혼인비와 같은 자녀장래를 위한 경제적 부담금이 사회전체를 통해 간소화되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방향의 모색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중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김영근(1971). "更年期 障礙". 「韓國의 科學」 3 (5), 398.
- 2) 김영혜(1979). "폐경의 要因과 症狀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6(1), 87.
- 3) 김 태주(1987). "우리나라 일부 都市女性의 更年期 症狀 및 要因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4) 박애심(1981). "中年期 女性의 閉經期에 대한 認識과 健康狀態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1.
- 5) 석재호(1986). 「문제가정과 정신병리」.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 6) 이시형(1984). 「자신있게 사는 女性」. 집현전, 72.
- 7) 장하경(1991). "性役割 正體感 尺度 開發研究". *대한가정학회지* 29(4), 167-179
- 8) _____(1991). "中年期 女性의 性役割正體感和 憂鬱症".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9) 전영자(1985). "갱년기 장애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4(2), 72.
- 10) 정혜란(1985). "中年女性의 閉經에 대한 態度와 更年期 症狀間의 關係 分析研究". 고대 석사학위논문.
- 11) 한혜경(1985). "한국 都市主婦의 精神的 葛藤의 社會的 要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Borland, D.C.(1978). "Research on middle age : An assasmnt". *The Gerontologist* 18(4), 379-386.
- 13) Brim, L.L.(1976). "Theories fo the mid-life cri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2-9.
- 14) Flint, M.(1976). "Cross-cultural factors that affect age of menopause". edited by P.A.Van Keep, P.R. Greenblatt & M.Albeaux-Fernet, *Consensus on menopause research*,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15) Galloway, K.(1975). "The Change of Life". *A.J.N.* 75(6), 1006.
- 16) Giele.(1982). "Women in Adulthood : Unanswered Questions". *Women In the Middle Years*, ed., J.Z. Giele, N.Y. : John Wiley & Sons, 1-35.
- 17) Gove & Tudor.(1973).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In Changing woman and changing socie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8) Harkins, E.B.(1978). "Effects of empty nest transition on self-report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nal of Marrige and the Family* 549-558.
- 19) Hurlock, E.B.(1974). *Developmental psychology*,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671-679.
- 20) Jacobi, J.(1982). *The Psychology of C.G. Jung*, 역 : 이태동 : 칼 융의 심리학. 성문각.
- 21) Jung.(1933). *Animus and anima*, 1-3,11
- 22) _____.(1965). "Some Aspects of Mordern Psychotherapy". *The Practice of Psychotheraphy*, CW 16, 53.
- 23) _____.(1972). "Medical and Psychotherapy". *The Practice of Psychotheraphy*, CW 16, par. 208.
- 24) Livson.(1976). "Patterns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Aged Women : A Longitudinal Study". *Interaction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 107-15.
- 25) _____.(1988). "Being and becoming old,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 26) Norval.(1975).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postparental stage : Some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27) Notman, M.(1979). "Midlife concerns of women, Implications of the menopause". *Am J Psychiatry* 136(10) 1272.
- 28) Papalia, Diane, E and Sally Wendkos Olds.(1978). *Human Development*, Tokyou : Mac Graw Hill Kogakusha, Ltd., 376-387.
- 29) Pearson, L.(1982). "Climacteric". *A.J.N.*, July, 1098.
- 30) Peplau, H.E.(1975a). "Mid-Life Crises". *A.J.N.*, 75 (10), 1761.
- 31) _____.(1975b). "Midlife crisis". *Am Journal of Nursing* 75 1761-1765.
- 32) Radloff(1977). "The CES-D Scals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s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33) Sheehy(1976). *Passage :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 Dutton.